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LNG bunker vessels quietly multiply as demand inches up

2030년까지 70척 이상의 LNG버킹링선(LNGBV)이 필요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FLA(Fearnley LNG Advisors)에 따르면, 현재 투입되어 있는 LNGBV는 진수식은 가졌지만 아직 인도되지 않은 선박을 포함하여 17척이며 2021년 말까지는 34척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 \$90 billion fund closes door on oil and gas investments

약 910억달러를 운용 중인 오일로 상장 보험사 Storebrand가 녹색전환(green transition)을 가속화하기 위해 ExxonMobil, Chevron, Conocophillips, Husky Energy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힘. BlackRock 등 올해에만 7조달러규모의 자산가치를 가진 펀드들이 화석연료와 관련된 투자활동을 중단하고 있다고 보도됨. (Upstream)

## Blackstone to sell off stake in Cheniere's Sabine Pass LNG

Blackstone이 Cheniere가 주도하는 Sabine Pass LNG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함. 약 40%의 지분을 처분할 예정이며 매각규모는 약 70억달러라고 보도됨. 지분 매각은 3분기 내로 완료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Sabine Pass LNG의 첫번째 트레인인 2016년부터 가동을 시작했다고 알려짐. (Upstream)

## 노후선 해체량 증가

노후선 해체 야드는 빠른 시황 회복세를 즐기고 있다고 보도됨. 인도의 COVID-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해체선 시장은 팬데믹의 영향에서 거의 벗어나고 있다고 보도됨. 파키스탄 해체 시장의 노후선 해체 가격은 곧 LTD당 370달러선을 돌파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 Flex LNG, LNG선 인도 연기 요청

Flex LNG가 현대삼호중공업에 발주하여 건조 중인 17.4만CBM급 LNG선 1척에 대한 인도 연기를 요청했다고 보도됨. 당초 해당 선박은 2분기 인도 예정이었으나, 선주사측의 요청에 따라 9~10월 인도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Flex LNG는 현대삼호중공업에 2021년 인도 예정인 신조선 2척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 한국카본, 1,945억원 규모 LNG선 보냉자재 공급 계약

한국카본은 삼성중공업과 1,945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 화물창용 초저온 보냉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공시함.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71.2%에 해당하며 계약기간은 2022년 12월31일까지라고 보도됨. (이데일리)